

5월 21일 조례를 맞아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민족복원 투쟁본부'
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광주는 전쟁중이다. 류재을 열사 투쟁의 마지막 지점을 적들의 승리로 돌린다면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다느니, 역사에서 청년 학생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했다느니의 말을 꺼낼 수없게 될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한총련의 깃발을 내리고 민족의 운명을 벼랑 끝에 내몰아도 속수 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또 다시 망설여 질 것이다. 지금 이순간 여학생회에서 따로이 무얼 그리 한다고 야단법석이나 고 비꼬는 투로 물어올 우리 간부들이 있을 터이고, 또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수도 작은데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고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라는 식의 조언 -비판을 가장한 빈정거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학 간부인 나 마저도 주도적으로 투쟁해 가는데 주저하게 하고 망설여 저서 올바로 투쟁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마저 든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자 우리는 여학생회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연세대에서 성추행 당해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여학우들의 삶을 동지애적 의리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한총련이 재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이요, 또 다른 재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총체적인 한총련의 죽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치이다.

경북대에서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을 방기한다면 우리 여학우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경북대 총여학생회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경북대가 깃발을 내린다면 전여대협도 머지않아 그 깃발을 내려야 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식민지 한반도 우리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여학생회 간부는 몸이 두 개 이어야 한다.

여학생회 간부는 더욱 더 적극 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21일 경북대 여학일꾼 전체 일정은

8시 30분	투본 조례
10시 30분	여학 일꾼 전체 교양
12시	전체 선전전
3시	집회
6시	시내 선전전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품 1.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지 처벌을

위한 민족복원 투쟁본부 건설에 대해

① 정세

5,6월 사업계획서에 별첨

② 투쟁본부의 제기 배경

- 반강·영상 투쟁전선체를 형성하는데 여학단위의 자활력을 높여내고 선봉장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 연세대 성추행 진상 규명 투쟁은 동지애의 바로
- 여학단위의 조직적인 결속을 다지고 조직강화를 위해
- 자금의 정세를 긴장감있게 가져가기 위해
- 여학생회의 정체성 확보

③ 투쟁본부의 위상과 역할

위상을 97년은 강·영상이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 4천만 민중들은 또한 번 착취와 억압의 굴레에 갇히게 되느냐 아니면 강·영상이 하·도되어 해방구의 물꼬를 트느냐는 상황이 걸린 문제 만큼 경각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경북대 여학은 또한 각종 여학생운동에 개량화된 종류의 통수에 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식민지 한반도 절반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학은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쫓대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체계입니다.

역할: 여학생회 체계를 그대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성추행 당한 7명의 우리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7명의 투쟁이 아니라 50만 여학우의 선봉하는 투쟁으로 100만을 견인 하여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여학우들과 정족면이 가장 넓은 가까운 여학생회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면서 8천 여학우들과 함께 투쟁으로 만들어 갑시다

④ 투쟁본부 건설에 있어 간부들이 가져야 할 자세

희망을 가지자!!

신념을 가지자! 혁명적 신념은 혁명투쟁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딪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사상적 원천이다. 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보른:우리 활동가내 일부 간부들은 조직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조직규율을 어떻게 지키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주목하기는 쉽지만 그러면서 자칫 본산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하는 것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력을 높여 활동가로서의 풍모를 갖추게 하기 위한 과정은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혁명실천은 사상개조의 좋은 방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로 됩니다. 우리 간부가 얼마큼 활동가로서 커졌는 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의는 짧게 다지고 실천은 묵묵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합니다.

⑥ 여학생의 사업과의 관계

여학단위가 가져가야 할 사업, 체계를 변경하면서 싸그리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가지는 단위간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직공간의 재정비는 당연 투쟁속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정비되어 더욱 정교하고 강위력한 체계 속에서 정치학교 형식을 통해 내용성을 담보해내고 그렇게 사상학습을 통해 모아진 공분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 발현 시켜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총회때 보여주었던 '결사'의 정신을 배가해서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

일상사업을 총화하고 지도하며 또한 여학간부들의 여학가로서의 역량과 기량을 길러내고 좀 더 대중적인 간부로 단련한다.

⑦ 투쟁본부의 구체적 체계 및 활동방향

☞ 체계

전체 투쟁 본부장은 총여부(?)회장이 되고, 단대 여학생회장님이 각 단대의 투쟁본부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본 산하에는 투쟁단, 정책단 두개의 체계로 꾸려집니다. 여기에 일상사업주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쟁단;

은 민족 복원이 투쟁으로 술렁이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의 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새내기들과 재학생(특히 대동학교로 모아진 사람들), ☼과 여학생회 간부들, 여연, 탁아소모임

풍, 여학생회 등리로 육성될 수 있는 사람들등 조직화 가능한 사람들은 무조건 선봉대로 끌
린다. 이과정의 가장 어려운도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사업단**

중앙 주체만 있습니다. 단위에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위는 다시 고민해 봅시다.

 **정책단;**

각 단대 여연부장에게 제안합니다. 현재 각 단대에서는 단대 여연을 고민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여연 건설 또한 사람사업이기에 연대 성추행 투쟁으로 묶여 지는 사람들중
과여학생회장이나 평소에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학우를 파악해내고 이들을 투쟁속
에서 중점적으로 만나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대여연 건설에 대해 제안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투쟁단을 운영해 가며 그 속에서 의식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짤
막교양과 토론을 실시해봅시다. 여학생회의 필요성, 여성문제, 여성문제의 해결방향 등
에 관해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은 선봉대 전체입니다.

투분의 실질적인 활동은 투쟁단을 통해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가져갈텐데(이후 별칭)투쟁단
대장은 단대 여학생회장님 중 한 분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방향**

- 언제 시작할지??
- 체계 주체를 빠른 시일내로 세워내자!
- 아침8시 조례로 시작합니다.<다음 주 월(19일)부터>
- 전체 종례는 6시로 합니다.
- 12시거점(월,수,금은 복문에서 화,목,토는 복지관앞 에서)을 선정하여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여냅니다.
- 개인 모금함을 만듭니다.
- 강의실 아지와 개인별 면담을 통해 모금과 서명을 적극화해냅니다.
- 단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계분
전역

3시

**2.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 책임지 처벌을
위한 민족복원 선봉대 건설에 부쳐**

▶투쟁단의 의의와 역할

식민지 남한 사회에서 김영삼 정권 아래서는 우리 여학우의 삶은 다각도로 피폐화되고 있습
니다.

3. 단식민을 질 기저기기 위한 이익단위

활동 지침

- 각 여학 단위의 지지단식을 조직화 함시다.
- 지지자보(자보 명이는 '류재를 역사상 부검 영장철회와 대선자금 완전공개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를 위한 단식')이라고 써서 붙임시다.
- ??더 창의적인 것은 ?

4. 연세대 성추행 증언문과 진술서를

받읍시다.

항소한 5명의 우리 동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기도 하겠고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지 하나 하나의 진술이 중요하다. 연세대 진압당시 있었던 여학우가 2500명 정도 되니까 그들 모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언 녹음을 한다면 적들도 지금과 같은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연세 항쟁에 있었던 학우들을 개인적으로 꼼꼼히 만나들어갑시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격문을 직접 작성케 해서 각 건물에 붙인다거나 말입니다.

- 작년 총여학생회장님을 만나서 작년 실사작업한 것을 총화 받고
- 총여회장인 나부터 먼저 모범으로 격문을 쓴다.

5. 투쟁하는 대동제

감판대를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갑시다.

이 시기에는 투쟁단의 수가 몇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단을 조직화 해냅시다.

서명과 모금운동 감판대 옆에는 각단위에서 총화되는 연세대 성추행 진술문이 선전거리를 장식하면 큰 선전효과를 내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항쟁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50만 여학우 선언운동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9일 낮·9일 밤을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싸웠던 위용찬 연세대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청년 학생들의 그 기백있던 투쟁은 조국 통일 투쟁사에 길이 남을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군사독재도 감히 해내기 어려운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군사적진압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연행, 구속해 갔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여 마치도 이국의 침략군대가 우리의 자녀자에게 그랬듯이 마치도 위안부를 다루는 일본군대처럼, 주한미군의 야수적 만행처럼 그렇게 우리 여학우들을 유린하였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우리 여학우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유린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연대항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끝낼 수 없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동지들이 지금 나의 곁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고 아직까지 풀려나오지 못한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의 최후 발악은 연세대로 끝나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97년을 맞이하면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애국 민중들은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쉽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중들의 투쟁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김영삼 정권과 미국은 광폭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중들의 투쟁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을 성추행 했으며 단일 많은 학우들을 연행해가고 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옷을 벗겨놓고 조서를 받는 등 탄압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인간적인 탄압 앞에서 투쟁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제2의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지에적의리로 50만의 투쟁이 아니라 백만의 투쟁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제 연대항쟁을 말로만 기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투쟁전통으로 남겨질 연대항쟁이라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해내고 살인적진압을 자행한 김영삼정권과 그의 하수인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에서 성추행당하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가지면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 대한 마지막 의리일 것입니다.

야수적인 진압도 부족해서 여학우들에 대한 엄청난 언어폭력, 성추행으로 까지 탄압을 벌여왔던 반인륜 패륜정권 김영삼정권에 대한 분노의 적개심으로, 그리고 고소했던 7명만의 투쟁이 닳지 않게하겠다는 결의가 무색하게도 진정 동지애로 책임지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더 높은 결의로 연대항쟁성추행투쟁을 벌여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 ▼ ▼ ▼
3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연세대 항쟁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50만 여학우 선언운동 / 1인 1천원 모금 운동

연세대 항쟁시 성추행을 당한 여학우들을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는 선포한다.

1. 연세대 항쟁 성추행을 지시한 당시 경찰청장 박일룡, 현장 진압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처벌하라.
2. 지속적인 애국학생연행, 폭력적 시위진압 안기부, 백골단 해체하라.
3.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고 비인간적 탄압 자행하는 김영삼정권은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라.

번호	이름	주소	의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